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1531
----------	------

제안년월일 : 2007. 2 . 1.

제안자 : 안산광역시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안경위

- 2007. 1. 31. 문인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이 안산광역시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 2006. 1. 31.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안산광역시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동 건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함.

2. 주 문

-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2001.12),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3) 등 국가철도계획 Network 측면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 안산시가 건교부에 제안한 노선과는 별도로
- 타 노선이 제안됨으로써,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 취지와는 다르게 노선결정의 우려가 있어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안산시의회 의원은 신안산선 노선을 당초의 계획기능에 부합하는 광명역~성포역~중앙역~고잔신도시~경기TP 노선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3. 제안이유

- 우리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의해 형성된 산업 도시로 공단근로자의 주거기능과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그 특성이 구분되며, 고잔신도시, 성포지역 등의 서울과의 출·퇴근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신안산선 건설에 서울 출퇴근 통행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우리시는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여의도~광명역~성포역~중앙역~고잔신도시~경기TP의 최적노선을 도출한 바 있음.
- 그러나, 신안산선 노선확정과 관련 안산시와 시흥시 주민간 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건교부의 노선선정을 위한 『신안산선 안산~청량리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서는 노선 선정 요인으로 건설비만을 중요시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 우리 안산시 의회는 당초 계획 당시의 목표에 부합하고 안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안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신안산선의 노선이 확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며,
- 안산시의 서울 출퇴근 이용자 대부분 거주하는 안산시 동부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신안산선 본래의 기능인 간선급행전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동서부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고자한다.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X자형 간선급행전철인新安山선이 서울 및 경기 동·북부로 신속한 여객 수송을 담당하는 당초의 계획기능에 부합하는 여의도~광명역(고속철도역사)~장하차량기지~성포역~중앙역 ~고잔신도시~경기TP의 노선결정을 강력히 건의함.

1. 건설교통부는新安山선 노선결정에 따른 안산시·시흥시간 및 양시의 시민간 민민 갈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등 사회적 이해 분쟁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가의 광역교통 기반시설이 단순 사업비 절감 측면의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新安山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3.新安山선 건설 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이용자가 많으며,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여의도~광명역~성포역~중앙역~고잔신도시~경기TP의 안산시 제안노선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4.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국가철도망 건설이 통행수요를 무시한 단순 사업비만을 고려한 노선으로 건설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의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안산시 제안 노선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